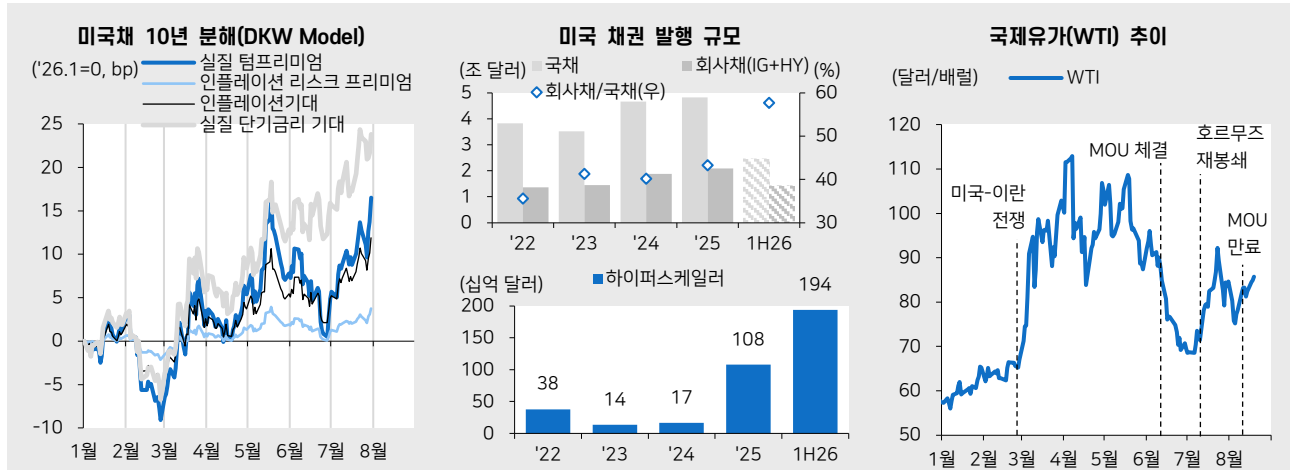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박민서 연구원

미국 장기금리와 텀프리미엄



주: 두번째 상단 그래프는 1년 이하 단기(T-Bill) 제외, 하단 그래프는 AMZN, GOOGL, META, ORCL 4사 대상
 자료: D'Amico, Kim, and Wei(2018), SIFMA, LSEG,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미국 중심 장기금리 상승이 대두되고 있다. 7월 미국 경제지표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9월 FOMC 금리인상 확률은 낮아졌고, 이에 미국채 2년물은 4.17%로(8/18 기준) 하반기 0.14bp 하락했다. 그러나 10년물은 4.71%로 24.08bp, 30년물은 5.29%로 33.45bp 상승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장기금리 상승은 기대요인(실질 단기금리 기대+기대인플레이션)과 텀프리미엄(실질 텀프리미엄+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연초 이후 미국채 10년물 상승분 54bp 중 단기금리 기대가 24bp로 절대적인 규모는 가장 크지만, 최근 금리를 더 밀어올린 것은 7월 이후 심화된 텀프리미엄 상승(실질 텀프리미엄 17bp+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4bp)이다.

일각에서는 그 중 특히 실질 텀프리미엄에 주목하는 듯하다. 실질 텀프리미엄은 금리 불확실성이나 수급 요인이 반영되는데, ① 현재까지 FY26 재정적자가 1.80조 달러로 이미 FY25 1.78조 달러를 상회, ② 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채 발행이 1H26만 해도 2천 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며 수급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하필 7월을 기점으로 텀프리미엄이 반등한 것은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는 생각이다. 미국 재정 건전성과 AI 자금조달 확대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전부터 지속된 재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가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MOU 체결 이후 시한을 앞두고 지정학 리스크가 대두되며 WTI가 재차 80달러를 상회한 가운데, 7월 FOMC는 일단 금리동결을 시사했다. 즉 인플레이션 요인을 자극하며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다.

장기금리 급등은 정부 이자비용을 높여 텀프리미엄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하거나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이는 등 리스크 요인이다. 향후 장기금리가 하락하려면 단기금리 기대가 추가적으로 낮아지거나 미국-이란 협상 및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이 관건일 것이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